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20.03 [22~26]

(가)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뱃귀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제1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쓴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수>

추성 진호루* 뱃귀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수>

㉡ **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안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 -

* 추성 진호루: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

(나)

신묘년 가을, 북쪽으로 유배 가게 되었다. 말이 없었기에
가산을 털어 말 여섯 마리를 사서 내 몸을 싣고 입을 것 먹
을 것을 싣고서 삼천 리 떨어진 변방 땅까지 갔으니, 그곳
은 바로 부령이었다. 짐을 풀어놓자 주머니에 남은 것이 없어
아이종이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얻을 방도를 알려 주겠소. 변방
에는 말이 천하고 소가 귀하니, 소 한 마리를 몇 달 동안
남에게 빌려주면 곡식 몇 섬을 얻을 수 있소. 그러니 데려온
말을 팔아 소를 사면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이오.”

[A]

내가 말했다.
“아니오. 내 걸음을 대신하고 내 짐을 싣고서 험한 고갯길
을 넘어, 내가 길가에 쓰러지지 않고 연명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이 말들이오. 말이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데 내가
이제 와서 데리고 있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남에게 팔아
버린다면, 말은 내게 도움을 주었는데 나는 말을 저버리는
것이오. 말이 비록 미물이지만 내가 차마 저버릴 수 있겠소”
㉤ **어떤** 이가 달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신의는 고루하구려. 천지 사이에 있는 만물은 각기
주인이 있지만, 바꾸기도 하고 주기도 하니 그 주인은 일정
하지 않소. 말은 남의 말이었는데 당신이 샀고, 당신의 말인
데 남에게 파는 것이오. 소는 남의 소인데 남이 당신에게 파
는 것이니, 말은 남에게 가고 소는 당신에게 오는 것이오.
저쪽으로 가면 저쪽이 주인이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이 주인
이오.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바꾸어 어려운 처지를 넘기는
법,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겠소? 그러므로 옛날 군자는 사람
에게 신의를 지켰지 애써 동물에게 신의를 지키지는 않았소.
동물에게 신의를 지키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동물을 바꾸어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소? 당신은 우활한 사람이오. 신의

를 어디다 쓰겠소”

나는 그제야 펄쩍 깨달았지만 서글피 한탄했다. 소와 말은 천
지 사이에 있는 공공의 물건이니, 반드시 내가 주인인 것도 아니
고 반드시 남이 주인인 것도 아니다. 저 사람이 주인이면 저 사람
의 소유이고, 내가 주인이면 나의 소유이다. 주인을 찾지만 한다
면야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이 아니었다
면 저 소와 바꾸지 못했을 것이고, 이 소가 아니었다면 이 곡식
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곡식을 얻지 못했다면 죽었을 것인
데, 소와 말을 바꾸어 잡시나마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무슨
해가 되겠는가? 그 사람의 말이 맞다.

그렇지만 한탄스러운 점이 있다. 나는 젊었을 적 학문에 뜻을
두어 오로지 독서를 일삼았다. 그러다가 늙어서는 태평성대에 죄
를 짓고 불모지로 유배되었다. ㉥ **가산을 털어 말을 사고, 말을 소
와 바꾸고, 소를 사람에게 빌려주어 마치 장사꾼처럼 매매했다.** 먹
을 것이 내게 큰 누를 끼쳤구나. 말은 나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내
가 데리고 있지 못했고, 소는 나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내가 지키
지 못하여 이 동물들이 편안히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었다.
내가 이들을 몹시 그르쳤구나. ㉦ **이 입 때문에 이 몸에 누를 끼
치고 이 동물들을 그르쳤으며 끝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말
았다.** 나는 처음에는 부끄럽다가 중간에는 마음이 풀렸으나 결국
은 서글피져 혀를 차며 이 글을 지었다.

- 홍성민, 「마환우설」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향하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예찬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생동감을 조성하고 있다.

2.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상이다.
- ② ㉤와 ㉦는 모두 화자나 글쓴이에게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이다.
- ③ ㉤는 화자가 호감을 지닌 대상이고, ㉦는 글쓴이가 반감을 지닌 대상이다.
- ④ ㉤는 화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존재이고, ㉦는 글쓴이의 판단을 비판하는 존재이다.
- ⑤ ㉤는 화자를 갈등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존재이고, ㉦는 글쓴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존재이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의 작가는 사대부 신분으로 혼란한 정국 속에서 유배를 당해 외롭고도 힘든 격리 생활을 체험하였다. 사대부의 유배 문학은 일반적으로 유배지에서 겪는 고뇌와 고통을 토로하면서 충신연주(忠臣戀主)나 우국의 심정을 나타내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곤궁한 생활이 심해질수록 작가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 ① ㉠은 화자가 '피'와 '물'의 속성을 통해 자신이 유배지에 격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군.
- ② ㉡은 화자가 '외기러기'를 통해 유배지에서 외롭게 가족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군.
- ③ ㉢은 화자가 '임금'에 대한 충성과 '아버이'에 대한 효심이 결국 하나라는 발상을 통해 충신연주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군.
- ④ ㉣은 글쓴이가 자신의 신분이 사대부에서 상인 계층으로 바뀌었음을 한탄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군.
- ⑤ ㉤은 글쓴이가 자신의 행위를 책망하며 곤궁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고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군.

4.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의 '그 밧과 여남은 일'은 화자가 신념에 의거하여 추구하려는 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2수의 '이 마음 어리기도'는 순수한 본성의 회복을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제3수의 '그칠 뉘를 모르나다'는 곧은 지조를 변함없이 지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제4수의 '많고 많고 하고 하고'는 자연에 귀의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강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제5수의 '하늘이 삼겨시니'는 화자가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다가 좌절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군.

5. <보기 1>을 바탕으로 윗글의 [A]와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선생님: <보기 2>는 (나)의 작가가 지은 「무염판속설」의 일부입니다. (나)와 <보기 2>는 동일한 유배지에서 체험한 바를 소재로 하여 시차를 두고 창작한 작품들로, 개인의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당대 유배지의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기 2>—

부령에 유배 온 지 몇 달 만에 돈이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었다. 주민에게 의논했더니 이렇게 일러 주었다. "바닷가는 곡식이 비싸고 소금이 싼데, 오랑캐 땅은 곡식이 많고 소금이 부족합니다. 바닷가에서 소금을 사서 오랑캐에게 팔고 곡식을 산다면 그 값이 원래 곡식의 몇 배나 될 것이니,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이 말을 듣고서 이것은 장사꾼이 하는 일이니 나는 차마 할 수 없다고 한참 동안 주저했다. 배에서 소리가 나고 아이종이 성을 내었다. 잠시나마 죽지 않기 위해 그 방법대로 하려니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하여 아이종을 시켜 몇 말 곡식을 가지고 구십 리 떨어진 바닷가에 가서 소금을 사 오게 하니 소금이 열 말 정도 생겼다. 이 소금을 말에 싣고 백이십 리 떨어진 북관(北關)으로 가서 곡식을 사 오라 하자, 곡식이 스무 말 정도 생겼다.

- ① [A]와 <보기 2>는 모두 유배지의 풍속을 인용함으로써 그곳 거주민들이 이민족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A]와 <보기 2>에는 모두 글쓴이가 굶주림을 모면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언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 ③ [A]와 <보기 2>는 모두 글쓴이의 면전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종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에는 대화의 과정에서 동물에 대해 신의를 지키려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 ⑤ <보기 2>는 글쓴이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종을 시켜 물건을 매매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보 기>

(가)와 (나)의 작가는 사대부 신분으로 혼란한 정국 속에서 유배를 당해 외롭고도 힘든 격리 생활을 체험하였다. 사대부의 유배 문학은 일반적으로 유배지에서 겪는 고뇌와 고통을 토로하면서 충신연주(忠臣戀主)나 우국의 심정을 나타내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곤궁한 생활이 심해질수록 작가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 읽기 전 활동

(가)와 (나) 작가 모두 사대부 신분으로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유배를 당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배 문학의 경우 유배지에서 겪는 화자의 고뇌와 고통을 토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한편으로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앞으로 볼 작품에는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작가 자신에 대한 비하 또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가)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빛과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라 <제1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슬프나 즐거우나 옳거나 틀리거나 자신 몸의 할 일만 닦고 닦는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외의 일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는 화자가 주변의 일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할 일만을 했다는 주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자신의 일이 망령된 줄 알지만 이러한 마음은 결국 ‘임’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음에도 임금에 대한 충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임’이 헤아려 달라는 말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임금이 직접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아무’는 화자에 대한 좋지 못한 이야기를 임금에게 전달함으로써 화자를 포함하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추성 진호루* 빛과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뒤를 모르나다 <제3수>
* 추성 진호루: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추성 진호루 밖을 흐르는 시내가 밤낮으로 흐르는 것을 본 화자는 마치 자신의 임에 대한 마음 또한 그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연물에 자신의 마음을 빗대어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보기>에서 언급한 충신연주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고 넘어간다면 좋겠습니다.

되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릴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산은 길고 물은 멀리 흐릅니다. 이러한 모습과 같이 화자의 아버이를 그리는 뜻 또한 많습니다. 이는 유배를 와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화자가 그리움의 정서를 담아 쓴 부분입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객관적 상관물인 ‘외기러기’가 우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알고 넘어간다면 좋겠습니다.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안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아버이를 그리는 뜻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을 향한 뜻 또한 이렇듯 하늘이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화자는 ‘임금’에 대한 충성과 ‘아버이’에 대한 효를 동일시하여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야말로 불효’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작품 총평

윤선도의 유배 시조 '견회요'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유배 가사에서 드러나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유배지에서의 서러운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읽는다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은 <보기>에서 제시해주고 있으니 보기에서 지문에 대한 사전지식을 파악하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
신묘년 가을, 북쪽으로 유배 가게 되었다. 말이 없었기에 가산을 털어 말 여섯 마리를 사서 내 몸을 싣고 입을 것 먹을 것을 싣고서 삼천 리 떨어진 변방 땅까지 갔으니, 그곳은 바로 부령이었다. 짐을 풀어놓자 주머니에 남은 것이 없어 아이종이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이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먹을 것을 얻을 방도를 알려 주겠소. 변방에는 말이 천하고 소가 귀하니, 소 한 마리를 몇 달 동안 남에게 빌려주면 곡식 몇 섬을 얻을 수 있소. 그러니 데려온 말을 팔아 소를 사면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이오.”
내가 말했다.
“아니오. 내 걸음을 대신하고 내 짐을 싣고서 험한 고갯길을 넘어, 내가 길가에 쓰러지지 않고 연명할 수 있게 해 준 것이 이 말들이오. 말이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데 내가 이제 와서 데리고 있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남에게 팔아 버린다면, 말은 내게 도움을 주었는데 나는 말을 저버리는 것이오. 말이 비록 미물이지만 내가 차마 저버릴 수 있겠소”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가 유배를 가서 쓴 수필임이 드러납니다. 화자의 유배지인 '부령'은 북쪽 지방에 있는 험지로, 화자는 부령까지 가는 동안 돈을 소진해 남은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본 현지인이 '데려온 말을 팔아 소를 사면'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방안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화자는 사대부적 이념으로 이를 거절하고자 합니다. 말이 자신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존재들인데 어떻게 팔 수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가 달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신의는 고루하구려. 천지 사이에 있는 만물은 각기 주인이 있지만, 바꾸기도 하고 주기도 하니 그 주인은 일정하지 않소. 말은 남의 말이었는데 당신이 샀고, 당신의 말인데 남에게 파는 것이오. 소는 남의 소인데 남이 당신에게 파는 것이니, 말은 남에게 가고 소는 당신에게 오는 것이오. 저쪽으로 가면 저쪽이 주인이고, 이쪽으로 오면 이쪽이 주인이오.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바꾸어 어려운 처지를 넘기는 법,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겠소? 그러므로 옛날 군자는 사람에게 신의를 지켰지 애써 동물에게 신의를 지키지는 않았소. 동물에게 신의를 지키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동물을 바꾸어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소? 당신은 우월한 사람이오. 신의

를 어디다 쓰겠소”

나는 그제야 펄쩍 깨달았지만 서글피 한탄했다. 소와 말은 천지 사이에 있는 공공의 물건이니, 반드시 내가 주인인 것도 아니고 반드시 남이 주인인 것도 아니다. 저 사람이 주인이면 저 사람의 소유이고, 내가 주인이면 나의 소유이다. 주인을 찾지만 한다면야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 말이 아니었다면 저 소와 바꾸지 못했을 것이고, 이 소가 아니었다면 이 곡식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곡식을 얻지 못했다면 죽었을 것인데, 소와 말을 바꾸어 잠시나마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무슨 해가 되겠는가? 그 사람의 말이 맞다.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이러한 화자의 생각을 '어떤 이'는 고루한 생각이라 비판합니다. 말의 주인이 지금은 당신이지만 당신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샀으니 사물의 주인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화자의 상황을 언급하며 화자가 굶어 죽느니 동물을 바꾸어 살아가는 것이 낫다는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드러납니다. 이를 들은 화자는 '어떤 이'의 말을 맞다고 생각하며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수필에서 드러나는 통념을 깨는 인물과 통념을 가진 인물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탄스러운 점이 있다. 나는 젊었을 적 학문에 뜻을 두어 오로지 독서를 일삼았다. 그러다가 늙어서는 태평성대에 죄를 짓고 불모지로 유배되었다. 가산을 털어 말을 사고, 말을 소와 바꾸고, 소를 사람에게 빌려주어 마치 장사꾼처럼 매매했다. 먹을 것이 내게 큰 누를 끼쳤구나. 말은 나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내가 데리고 있지 못했고, 소는 나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하여 이 동물들이 편안히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었다. 내가 이들을 몹시 그르쳤구나. 이 입 때문에 이 몸에 누를 끼치고 이 동물들을 그르쳤으며 끝내 보잘 것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나는 처음에는 부끄럽다가 중간에는 마음이 풀렸으나 결국은 서글피져 허를 차며 이 글을 지었다.

- 홍성민, 「마환우설」 -

✓ 필수적 독해 태도

-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그러나 한탄스러운 점이 있다며 자신이 말을 팔아 소를 산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화자가 끝내 사대부적 이념을 버리지 못하고, 실용주의적 이념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결국 어쩔 수 없는 사대부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대부적 이념을 지키지 못한 것을 자책하는 모습에서 <보기>에서 언급한 작가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유배간 화자가 자신이 느낀 바를 적은 수필입니다. 기본적인 수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통념의 제시와 이에 대한 반박 이후 못내 이를 아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인 수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으로, 유의하며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 하자면 말을 저버릴 수 없다는 통념을 제시하는 화자와, 이를 반박하며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어떤 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를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향하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 (가)에서는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라며 청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지만, (나)에서는 감각적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가)와 (나) 모두 지향하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않는 유배 문학입니다.

②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가)에서는 ‘분별할 줄 이시랴’, ‘내라 하여 모를쏜가’ 등을 통해, (나)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필요가 있겠는가?’, ‘무슨 해가 되겠는가?’와 같은 의문의 형식을 통해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의미와 속뜻의 차이가 존재하는 표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④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예찬하고 있다.

→ (가)에서는 영탄적 표현이 드러난다 보기 힘들고, (나)에서는 ‘내게 큰 누를 끼쳤구나’와 같이 상황에 따라 영탄법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둘 모두 대상의 가치 예찬이 드러나지 않아 틀린 선지입니다. 만약 해당 선지에서 헛갈렸다면 영탄법의 사용 여부에서 헛갈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탄법의 사용 여부는 교육청 해설지에서도 ‘썼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며 모호하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했듯 ‘끼쳤구나!’로 본다면 영탄법, ‘끼쳤구나.’로 본다면 평서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탄적 표현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 ‘대상의 가치 예찬’과 같은 뒷부분 설명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생동감을 조성하고 있다.

→ (가)에서는 계절적 배경 자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에서는 계절적 배경인 ‘신묘년 가을’은 드러나지만, 이러한 계절적 배경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⑤

㉠ 아무
㉡ 어떤 이

① ㉠과 ㉡는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상이다.

→ 둘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은 화자에 대한 임금의 판단에 개입해 화자를 유배지로 보내도록 하는 인물이고, ㉡는 화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인물입니다.

② ㉠과 ㉡는 모두 화자나 글쓴이에게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주는 존재이다.

→ ㉠은 화자에게 유배의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일 것이고, ㉡는 글쓴이에게 앞으로 살아갈 방안을 제시하며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내게 하는 인물입니다. 삶의 허무함을 깨닫게 하는 인물로 볼 수 없습니다.

③ ㉠은 화자가 호감을 지닌 대상이고, ㉡는 글쓴이가 반감을 지닌 대상이다.

→ ㉠은 화자의 유배 원인을 제공하는 인물로 화자가 적대심을 지닌 대상으로 반감을 가진 인물입니다. 반대로, ㉡는 글쓴이에게 살 방법을 제시하는 인물로, 반감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④ ㉠은 화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존재이고, ㉡는 글쓴이의 판단을 비판하는 존재이다.

→ ㉠은 임금의 판단을 흐리는 존재로, 화자의 유배 원인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는 글쓴이의 판단을 비판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⑤ ㉠은 화자를 갈등 상황에 놓이도록 하는 존재이고, ㉡는 글쓴이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존재이다.

→ ㉠은 화자에 대한 모함을 통해 임금의 헤아림에 간섭하여 화자를 ‘갈등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는 글쓴이가 말이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기에 팔 수 없다고 말하자 이를 비판하며 글쓴이의 인식 변화를 유도합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④

<보 기>

(가)와 (나)의 작가는 사대부 신분으로 혼란한 정국 속에서 유배를 당해 외롭고도 힘든 격리 생활을 체험하였다. 사대부의 유배 문학은 일반적으로 유배지에서 겪는 고뇌와 고통을 토로하면서 충신연주(忠臣戀主)나 우국의 심정을 나타내는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때로는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곤궁한 생활이 심해질수록 작가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 ㉠ 되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 ㉡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 ㉢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노라
- ㉣ 가산을 털어 말을 사고, 말을 소와 바꾸고, 소를 사람에게 빌려주어 마치 장사꾼처럼 매매했다.
- ㉤ 이 입 때문에 이 몸에 누를 끼치고 이 동물들을 그르쳤으며 끝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① ㉠은 화자가 '되'와 '물'의 속성을 통해 자신이 유배지에 격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군.

→ 화자는 산이 길고 물이 멀다는 것을 통해 자신이 벗어날 수 없음을 드러내어 유배지에서 격리된 생활을 겪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러한 자연물의 특성으로 인해 어버이를 볼 수 없어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② ㉡은 화자가 '외기러기'를 통해 유배지에서 외롭게 가족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군.

→ '외기러기'가 '울고' 간다는 내용을 통해 화자가 외로이 가족을 그리워하는 심정이 드러납니다. '외기러기'는 화자가 슬퍼하는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은 화자가 '임금'에 대한 충성과 '어버이'에 대한 효심이 결국 하나라는 발상을 통해 충신연주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군.

→ 화자는 임금을 그리는 마음과 어버이를 그리는 마음 모두 원래부터 있었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임금'에 대한 충성과 '어버이'에 대한 효심을 동일시하여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 불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대 사대부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던 충신연주의 태도임을 알고 넘어간다면 좋겠습니다.

④ ㉣은 글쓴이가 자신의 신분이 사대부에서 상인 계층으로 바뀌었음을 한탄하면서 자신을 비하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군.

→ 글쓴이가 자신이 장사꾼이나 할 법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글쓴이의 신분이 상인 계층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⑤ ㉤은 글쓴이가 자신의 행위를 책망하며 곤궁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고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군.

→ 글쓴이는 자신이 말을 팔고 소를 얻은 행위를 자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곤궁한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대부적 이념을 포기한 자신에 대해 느끼는 고뇌가 드러납니다.

4.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③

① 제1수의 '그 밧기 여남은 일'은 화자가 신념에 의거하여 추구하려는 일로 볼 수 있겠군.

→ '그 밧기 여남은 일'은 화자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내 몸의 해울 일'과는 정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일입니다. 이는 '분별할 줄 있으랴'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분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화자가 하고자 하는 일과는 대척점에 놓여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념에 의거하여 추구하고 있다는 부분은 틀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제2수의 '이 마음 어리기도'는 순수한 본성의 회복을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이 마음 어리기도'는 마음이 어리석다는 뜻으로, 화자가 입을 위한 마음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으나 이조차도 다 입을 위한 것임을 주장하는 말입니다. 혹여나 해당 선지에서 헛갈렸다면 '어리다'의 뜻을 현대 국어의 '나이가 적다'로 해석한 것은 아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세 국어에서 '어리다'의 뜻은 '어리석다'입니다.

③ 제3수의 '그칠 뉘를 모르나다'는 곧은 지조를 변함없이 지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그칠 뉘를 모르나다'는 '입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줄 모르고 흘러가는 시대를 보며 화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입에 대한 충성을 지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④ 제4수의 '많고 많고 하고 하고'는 자연에 귀의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강조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많고 많고 하고 하고'는 위의 '길고 길고 멀고 멀고'와 대응되어 어버이를 향한 마음이 크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자연에 귀의하려는 의지는 아닙니다.



⑤ 제5수의 '하늘이 삼겨시니'는 화자가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다가 좌절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하늘이 삼겨시니'는 화자가 아버이를 그리는 뜻과 같이 임금을 향한 뜻도 이렇게 하늘이 정해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 임금에 대한 자신의 충성이 부모에 대한 효와 같이 운명적인 것이라는 화자의 시선이 드러납니다.

5. <보기 1>을 바탕으로 밑글의 [A]와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보기 1>

선생님: <보기 2>는 (나)의 작가가 지은 「무염판속설」의 일부입니다. (나)와 <보기 2>는 동일한 유배지에서 체험한 바를 소재로 하여 시차를 두고 창작한 작품들로, 개인의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당대 유배지의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보기 2>

부령에 유배 온 지 몇 달 만에 돈이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었다. 주민에게 의논했더니 이렇게 일러 주었다. "바닷가는 곡식이 비싸고 소금이 싼데, 오랑캐 땅은 곡식이 많고 소금이 부족합니다. 바닷가에서 소금을 사서 오랑캐에게 팔고 곡식을 산다면 그 값이 원래 곡식의 몇 배나 될 것이니,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이 말을 듣고서 이것은 장사꾼이 하는 일이니 나는 차마 할 수 없다고 한참 동안 주저했다. 배에서 소리가 나고 아이종이 성을 내었다. 잠시나마 죽지 않기 위해 그 방법대로 하려니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하여 아이종을 시켜 몇 말 곡식을 가지고 구십 리 떨어진 바닷가에 가서 소금을 사 오게 하니 소금이 열 말 정도 생겼다. 이 소금을 말에 싣고 백이십 리 떨어진 북관(北關)으로 가서 곡식을 사 오라 하자, 곡식이 스무 말 정도 생겼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시적 상황 파악하기

② 화자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화자는 유배지에 도착해 돈이 다 떨어집니다. 이를 주민에게 의논하자 소금과 곡식의 매매를 통해 돈을 벌면 입에 풀칠할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화자는 이는 장사꾼들이나 하는 것이라면서 주저하다 결국 죽지 않기 위해 아이종을 통해 소금과 곡식의 매매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화자가 실용주의적 관점이 아닌 사대부적 관점을 갖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① [A]와 <보기 2>는 모두 유배지의 풍속을 인용함으로써 그곳 거주민들이 이민족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A]는 말이 혼하고 소가 부족한 부령의 상황을, <보기 2>는 곡식이 비싸고 소금이 싼 부령의 상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풍속이라고 보기에 어려울뿐더러 거주민들이 이민족의 영향을 받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주민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곳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② [A]와 <보기 2>에는 모두 글쓴이가 굶주림을 모면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언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 [A]에서는 말이 혼하고 소가 부족한 지역적 특성을 통해 말을 팔아 소를 산 후 빌려주는 방식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하는 인물이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보기 2>에서는 소금이 혼하고 곡식이 귀한 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며 소금을 내륙에서 팔아 곡식으로 바꾸어 온다면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③ [A]와 <보기 2>는 모두 글쓴이의 면전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종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A]에서는 '아이종이 불만스러운 얼굴이었다', <보기 2>에서는 '아이종이 성을 내었다'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아이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A]에는 대화의 과정에서 동물에 대해 신의를 지키려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 [A]에서는 대화의 과정에서 '내가 차마 저버릴 수 있겠소'라며 동물에 대해 신의를 지키려는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⑤ <보기 2>는 글쓴이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종을 시켜 물건을 매매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보기 2>에서는 '몇 달 만에 돈이 다 떨어져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곡식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리하여 아이종을 시켜 ~ 곡식이 스무 말 정도 생겼다.'며 아이종을 시켜 물건을 매매한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